

# 與 “김어준, 촛불 역사 중심”...野 “조국 수호 이어 어준 수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감사원 감사에 대한 비판에 나선 가운데, 야권은 25일 "검찰개혁이 사실상 조국수호고, 언론개혁이 사실상 어준

이준석 “김어준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수준 신격화”

홍준표 “천재적 재능 있는 건 분명...박수칠 때 떠나야”

수호라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수준의 신격화”라며 “그리고 청취율 1위니 뭐니까 신뢰, 수호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일 거면 슈퍼챗 세계 1위하

는 방송은 참언론이겠다”라고 비꼬았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B급 언론인으로서 지금 김어준씨는 최고 절정기를 맞고 있다.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며 “김어준답게 현명하게 처신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김어준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여년 전 그가 한겨레 객원기자 시절에 와이드 인터뷰를 하면서부터였다”며 “요즘도 가끔씩 안부 전화를 주고 받지만, 그가 노골적으로 색깔을 드러내고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터는 그의 방송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갖 세간의 말들이 있지만,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역발상을 하는 천재적 재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세상을 밟아 내려다 보고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강변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것이 김어준의 매력이었지만, 강자로 떠오른 지금

은 그것이 오히려 김어준씨에게 반감만 갖게 하는 요인”이라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씨가 구두계약, 과도한 출연료 논란을 겪으면서 감사원이 TBS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뉴스공장은 국정농단 폭로, 촛불혁명, 탄핵, 정권교체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바뀌는 현장에서 촛불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감쌌다.

뉴스스

## 정세균 전 총리 이번주 호남서 대권 행보 ‘시동’

내일부터 2박3일 방문...5·18묘역 참배·특강 등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호남을 방문, 본격적인 대권가도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2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오는 27일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다. 정 전 총리는 오는 2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역 원로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지역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로 다른 대권주자들과 차별화를 노리는 정 전 총리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주지역 경제 현장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는 또 오는 29일에는 광주대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부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을 시작으로 경남, 부산지역을 도는 등 민생투어에 나서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총리 퇴임 이후 첫 호남 방문인 정 전 총리는 사실상 대권에 시동을 거는 행보로 보인다”면서 “지역원로와 기업인 등과 만나 다양한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의협 정기총회 참석차 주호영-안철수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김희재, ‘전라선 고속화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은 22일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익산-여수 구간을 지금보다 34분 정도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희재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지역민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를 위해 노력한 성과라

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전라선의 해당 지자체, 전남·전북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부터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에게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추진을 건의하고 촉구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 원내회의 모두발언, 전남도 예산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활발히 움직였고, 지난 3월 25일에는 전라선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구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전라선, 3조원 투입해 설계속도 250km 고속화 반영  
익산-여수 구간, 지금보다 3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지난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반영됐는데, 전라선에 대해 약 3조원 가량을 투입해 설계속도를 250km/h로 상향해,

고 생각하고, 지역민과 함께 서울-여수가 2시간대 생활권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

## ‘73년 숙원해결이 한걸음 앞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소병철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따라서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요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

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앞 순서로 앞당겨냈다. 하지만 소위가 진행되자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져 는 듯했다. 이에 소 의원은 법안상정 시간에 앞서서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으로 달려 “오늘은 여순법에 대한 소위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위원들을 끝까지 설득해냈다. 소 의원은 소위 회의장 밖에서 여야

위원들을 연이어 접촉하며 설득하고 여순법 논의가 끝날 때까지 소위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행안부와 여야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소위 통과로 큰 산 중의 하나를 넘었다. 오랜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오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오늘 여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준 행안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천=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